

# 시도교육청 평가, 대구·경북교육청 1위

## 교육부, 지난해 교육성과 평가 결과 발표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시 지역에서는 대구교육청이, 도 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시·도교육청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정과제 등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에서 수행해 온 2015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다. 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등 7개 영역으로 교육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한 준비 실적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교육과정 강화 등 평가지표에서 모든 시·

도교육청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종합평가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 대전, 울산교육청이 1~3위를 차지했고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전남, 충남 순으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대구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기반 사회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환경 지원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 모두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시지역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꿈찾기기 BEST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도지역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라남도교육청은 '독서·토론으로 행복한 학생, 열차학교로 꿈과 깨열!'이라는 사업을 통해 독서·토론 우수 교육자료집, 사례집 제작 및 보급 등 독서·토론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원장지원 역량강화,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시·도별 특색 있는 우수교육정책들을 교육청들이 서로 공유·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 시·도교육청평가 계획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중 최종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 알뜰시장으로 훈훈한 정을 나누다

### 합천삼기중, 불우이웃돕기 동참

경남 합천 삼기중학교(교장 이경구) 전교 학생회가 7월 11~12일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알뜰시장은 경제 개념의 올바른 정립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함양하고, 간단한하고 올바른 경제인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학생들이 시장준비의 자율적인 참여와 판매 및 뒷정리까지 자주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기부를 통한 알뜰시장 운영은 합천교육지원청의 중점과제인 '감·사·인성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교인성교육 강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그 의미가 아주 크다. '사람의 실정은 작은 기부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를 통해 '품성'이 바르고 기분이 충실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본교 교육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판매로 인해 많은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기기자 khh@



## 드론에 내꿈 실어 날리는 순간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경남본부, 진주 갈전초서 드론 체험 행사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경남본부(본부장 이맹우 김해교육청)에서는 7월 16일 경남 진주시 갈전초등학교(교장 박상운) 강당에서 110여 명의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 '2016 진주 드론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경남본부는 한국

드론협회회경남지사(지부장 기아전산정보 김호진)의 협조로 안전한 국산 교육용 드론인 드론파이어와 페드론을 이용해 진주와 사천, 함천, 거제, 통영 등 서부경남지역의 우주소년단과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진주와 사천 등 서부경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지답게 드론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했다.

학생들은 20명의 조를 이뤄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의 원리를 배우고 드론과 관련된 직업소개와 각종 드론파이어를 조정하고, 장애물 날기, 작곡훈련, 배틀게임, 레이싱 등을 통해 드론과 함께 자기의 미래

에 대한 꿈을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드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과 페드론 등 다양한 드론 제품의 시범 비행도 관람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경남본부 이복귀 회장은 "많은 꿈을 품은 한국과학우주소년단원과 참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세계를 체험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한기에도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등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드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hh@



## 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주의

최근 기온 상승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 사기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판'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돼 오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간 '누리망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

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교과감·속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

설·용품 등의 '할인권'이 91건으로 39%, 항공기·렌터카 등 '교과감' 53건, '속박권'과 '야생방사' 각각 44건 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산 높음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 “나도 Good샘”

### 김해진영고, 학생이 교사되는 수업대회

경남 김해 진영고등학교(교장 박준근)는 지난 7월 13일 학생이 교사의 입장이 되어 수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나도 굿샘(Good 샘)' 학생 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나도 굿 샘(Good 샘)' 학생 수업 경연대회는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해보고 싶은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선정해 학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대회이다.

평소 관심을 갖고 공부한 과목이나 주제를 친구, 후배들과 배우고 나누고 학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및 진로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2학년 안기호 학생은 "평소 수업시간을 쉽게 흘러보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대한 존경심을 더 갖게 되었다"고 참가 후 소감을 전했다.

김호기기자 khh@

을 얻었다.

특히 교내나 사범대학으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뿐만 아니라 철학고, 사회학과, 간호학과, 미술과 등 다양한 진로 분야에 참가해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나눴다.

'나도 굿 샘'에 참여한 3학년 박유진 학생은 윤리와 사상 수업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활용해 노장사상의 이해를 돕는 창의성이 돋보였으며, 수학교사가 꿈인 3학년 이연주, 조문기 팀은 등비수열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노이탑'을 활용해 인기를 얻었다.

**청담동 도심형 품격주택**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신규생원사설 분양안내

**년중불패상권**  
年中不敗上權

- 유치원 입점
- SAT센터 입점
- 아파트 입점
- SORBSO 입점
- 국가대표 상권

# 청담동의 대박!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청담대표상가 신원아파트도시 마인

☎ 540-1160

## 경남도교육청 '2016 제비 생태탐구프로젝트 결과 보고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6 제비 생태탐구프로젝트 결과 보고회'를 14일 오후 진주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우포생태교육원 이 주관하는 이번 보고회에는 경남도내 초·중·고교 60개 제비 탐구교와 학생, 지역 교육지원청 환경교육담당 장학사, 시민 조사단까지 약 250명이 참석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6 제비 생태 탐구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60개 제비 생태 탐구동아리 450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685개의 제비 번식 동지와 51개의 귀제비 번식 동지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는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네이처링' 스마트폰 앱에 등록했으며 모든 조사 결과 정보는 전부 공개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이나 김해체험 도슴에도 직접 소식이 전해 제비가 관찰했으며 제비동아리 조사 지역 내에서 제비가 관찰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김호기기자 khh@

제비 동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슴에도 우리가 몰랐지만 제비가 살고 있었으며 창원 시내 농산읍 등지에서 제비 많은 숫자의 제비가 발견됐다.

마산 뒷거리에 많은 제비가 번식하는 등지를 찾았으며 김해 연지공원 호수 둘레 주택도 제비 많은 집에 제비가 찾아오고 있다고 의외의 시골 마을에도 제비를 한 마리도 찾지 못한 마을도 있었다.

김호기기자 khh@